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누가 11:1-4

2021 년 2 월 21 일

기도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질문에, 료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답하기를, "이 질문은 독수리가 왜 끝없이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가? 하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날개는 높이 날게 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감사 한 이유 하나씩 나눕시다 했더니, 모두들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일하면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통 건강하다 우리가 말할 때에는, 육신의 건강을 말합니다. 그렇죠? 육신이 건강해야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고기보다는 야채와 과일을 많은 먹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어떤 분은 그림 그립니다. 소위 나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운동 외에도 심호흡하기, 취미 활동하기 등을 합니다. 그리고, 영의 건강을 위해서 뭘하니까?

건강한 육신과 마음을 위하여 이런 저런 운동을 해야 하듯, 건강한 영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영이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들 합니다. 육신이 호흡이 없으면 죽듯이, 영이 기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복종의 복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조용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때때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지상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데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 장 1 절에 보며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 요구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말롯의 주기도문 곡에 맞추어서, 1 시 예배 시간에는 찬송합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배우고,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번 가르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1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1) 엘(EI)과 엘로힘(Elohim)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2) 엘론(Elyon) 숭고한자 즉 숭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3) 아도나이(Adonai)

항상 모든 인간의 소유주와 지배자인 주'를 뜻한다. 또 다른 명칭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샤다이 또는 엘 샤다이 라는 명칭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익숙한 하나님 호칭이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애칭을 주셨는데,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정신 번쩍 들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당신께서도 친히,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여 !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울도, 로마교회에게 쓴 서신 8;15 절에 보며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두번 부르는데, 아바라는 말은 사투리가 아닙니다. 아바라는 말이 본래 아람어로, 우리 말의 “아빠”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의 순진함과 천진난만함, 어린 아이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려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런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듯이,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기도는 신이 나는 일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로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뵈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아버님이 5 살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당신 아버지를 잘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제대로 못받아, 어린 시절에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운이 없고,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 살 때에, 전도를 받으시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땅의 아버지는 안 계신데,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인생은 180 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40 년을 넘게 목회하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심,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라고 하셨나요? 우리와 같이 있지 않나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살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15 편 3 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3 편 13 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의 내면을 통찰하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경배와 숭배를 받을 크신 분, 제대로 그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할 경외로우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시고, 만날 수 있는 분이시고, 대화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날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이니까요. 기도는 평안의 시간입니다. 날 품어주시는 부모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기도는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찬송가 483 장, 새 찬송가 539 장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네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 후렴 >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1

두번째 가르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 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교회 믿음 공동체 모두 아버지이시고, 더 나아가서, 온 동네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거의 30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겐세마네 동산 옆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각 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벽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물론 한국말로도 있습니다. 지하실 벽에도 새겨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라고, 여러 다른 민족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God Bless America” 부릅니다. 아마도, 영국으로 이민가게 된 다면, “God Bless England”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국경과 국적 그리고 언어와 문화, 모든 종교의 구분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곧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는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는 창조 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서로에게 형제, 자매입니다. 누님이고 누이이고, 형이고 동생입니다. 큰 오빠이고 작은 오빠입니다.

가족 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차 타고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마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아시안 사람, 유럽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흑인 백인 황색인,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서로에게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눈이 번쩍뜨이게 하는 기도입니다. 큰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하고, 그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사랑이 없으면, 하늘의 계신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다정하게 어울려 사이좋게 살며는, 하늘의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종 차별합니까? 배타합니까? 전쟁 합니까? 서로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 속에,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가르침도 받습니다.

다섯 손가락 하나씩 집으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소개합니다.

첫째 손가락은,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둘째 손가락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오스트렐리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셋째 손가락은, 가장 높은 손가락, 지도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지요. 많은 결정을 하는 데, 지혜와 충명을 주시옵소서.

넷째 손가락은, 반지끼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이 가장 약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섯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1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주일을 맞이 하기 전에,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기도하신 주님의 여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변화 받고 새롭게 창조함 받고,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